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과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

성경: 계 3:7-22

I.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시다.

- A.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무한하시고 생명을 해방하시고 일곱 배로 강화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서신의 처음에 일곱 교회 각각에게 하신 말씀(2:1, 8, 12, 18, 3:1, 7, 14)이, 각 서신의 끝에서는 일곱 배로 강화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주적으로 일곱 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된다(2:7, 11, 17, 29, 3:6, 13, 22).
- B. 이처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 곧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특정 지방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은 우주적인 몸에게 말씀하신다.
- C. 이것은 그 영께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가리키듯이, 교회가 타락한 어둠의 때에는 그 영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 D.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서신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서신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각 서신의 시작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특정 지방의 교회에게 하신 것이지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그 영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
- E. 그 영의 말씀하심은 항상 우리를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입받게 한다. 그 영의 말씀하심은 그리스도의 주입하심이다 — 비교 고후 3:16-18.
 - 1.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즉시 보배롭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옮겨 부으심, 주입하심을 받게 된다. 이러한 주입하심은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합당한 재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건축물로 건축되게 한다.
 - 2. 불 못으로 가야 할 것들은 모두 일곱 등불로 태워 없어지며(계 4:5),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기 위해 일곱 눈 아래 있으면서(5:6)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주입받고 있다.
- F. 교회들 안의 믿는 이들이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들을 귀를 갖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들 모두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긴밀히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을 부르는 부름이 있는 것이다.
- G.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들어야 하며, 듣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
 - 1.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기를 원하신다 — 욥 33:14-16, 사 50:4-5, 출 21:6.
 - 2. 둔한 귀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 렘 6:10, 행 7:51.

3. 죄인들의 귀는 구속하는 피로 정결하게 되고 그 영으로 기름 발라져야 한다 — 레 14:14, 17, 28.
 4. 제사장들로서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구속하는 피로 우리의 귀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 출 29:20, 레 8:23-24.
 5.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귀가 열리고 할례를 받고 정결하게 되고 기름 발라져야 한다.
- H.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사 가운데 있는 일곱 종류의 교회들에 관한 것인데, 이 교회들은 초대 교회(에베소), 고난받는 교회(서머나), 세속적인 교회(버가모), 변절한 교회(두아디라), 개혁된 교회(사데), 회복된 교회(빌라델비아),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라오디게아)이다.
1. 마지막 네 종류의 교회들은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2. 의심할 여지 없이, 회복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선택을 취해야 한다.
 3. 라오디게아는 일그러진 빌라델비아로서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교만하다 — 계 3:14-17.
 - a.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지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자신의 이전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린다.
 - b.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비교 계 3:7-22, 사 57:15, 66:1-2.

II. 회복된 교회(빌라델비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 집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집의 열쇠(보물 창고의 열쇠)가 어깨 위에 놓인 분으로 나타나신다 — 사 22:22, 계 3:7.

- A. 회복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곧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여닫는 권위가 그분께 있다. 주님은 한마음 한뜻인 회복된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 — 계 3:8, 비교 시 133편.
- B. 다윗의 열쇠는 우리가 흰 돌로 변화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준다 — 계 2:17, 3:12.
 1.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새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 롬 8:2, 계 3:7-13, 비교 창 28:12-19, 요 1:51.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이 보물 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풍성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것과 닫으시는 것을 다 체험했다 — 엡 4:30, 살전 5:17, 요일 1:7, 9.
 - a. 보물인 주님의 풍성을 누리려면, 우리는 생명의 감각에 따라 주님을 계속 접촉하고 주님과과의 접촉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며,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 고후 2:10, 롬 8:6, 10:12-13, 골 3:16, 마 5:3, 8.

- b. 보물인 주님의 풍성을 누리려면, 우리는 자아 부인과 십자가를 짐과 혼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들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모두 '썩나'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파면당하고 대치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해야 한다 — 사 22:15-19, 마 16:24-25.

Ⅲ.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그분께서 이기시고 나서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으신 것과 같이 이기는 이들에게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도록 해 주실 분으로 나타나신다 — 계 3:20-21.

A.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 계 3:20.

1. 이 문은 개인들의 마음의 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타락한 교회 밖에 서시어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
2. 문은 교회의 문이지만, 이 문은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열어야 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
3.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1) 공허한 교리적 지식이 풍성한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는 면에서는 몹시 빈약하기 때문에 비참하고, (2) 별거벗고 눈멀고 수치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련하며, (3)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면과 하나님의 경륜의 영적인 실재 면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4) 진정한 영적인 일들을 보는 참된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멀었으며, (5) 매일의 행함에서 주관적인 의, 곧 두 번째 옷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를 살지도 않기 때문에 별거벗었다 — 계 3:15-17, 비교 시 45:1, 9-14.
4. 주님은 교회 전체를 다루고 계시지만, 주님의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문제여야 한다.
5.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식사인 잔치 음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찬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좋은 땅의 풍성한 산물을 먹은 예표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 — 수 5:10-12.
6.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잔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조성에 있어서 그분과 한 실체로 연합되어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계 2:7, 17, 3:20.

B.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 계 3:21.

1.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은 이기는 이가 받는 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기는 이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장차 올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 눅 19:11-27, 마 25:21, 23.
2.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사람에게 일하시어 사람이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계 2:26-27, 3:21, 22:5, 비교 사 14:12-14.

3.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 예수님은 보좌에 오르셨다. 예수라는 이름의 참사람이 보좌에 계신다(겔 1:26). 이제 오늘날 하늘과 땅의 주님, 우주의 주님은 사람이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4. 주 예수님은 보좌에 이르는 길을 앞서가셨으며, 개척자이자 선구자로서(히 6:20, 2:6-9) 보좌에 이르는 길을 여셨다. 그분은 길을 여시고 앞장서 가심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다(히 2:10-12).
5. 지금 우리는 보좌를 향해 행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어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시며, 사람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탄을 내던지고, 사탄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간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여 그분의 보좌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왕들이 될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위에 일하시어 우리에게 왕권을 얻을 자격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 롬 5:17, 21, 비교 겔 1:22, 26, 마 8:9.